

장성 2천년 역사, 세 권의 책에 담았다

장성문화원 주관 3년여 작업 끝에 장성군지리지총서 발간
유두석 군수 "후대에 소중히 문화유산으로 남길 바란다"

장성군이 장성문화원 주관으로 3년여 작업 끝에 장성군지리지총서(사진)를 발간했다. 장성군지리지총서는 삼국사기부터 장성읍지에 이르는 20종의 지리지에서 발췌한 지역의 역사, 인물, 지도 등이 총 망라됐다. 장성문화원장을 지낸 공영갑 편찬위원장이 사료수집과 발간 전반을 책임졌다. 김봉곤 원광대학교 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가 동국어지지와 조선호남지 등을,

이종일 향토문화개발협의회장과 박명희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가 장성읍지를 번역했다. 총 3권인 장성지리지총서는 분량이 2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1권 '산자수려한 호남의 중심지'에는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동국여지승람, 장성부읍지 등에서 발췌한 지리를 수록했다. 2권 '국란을 주도한 충의지향'에는 장성의 풍속, 성씨, 서원, 충신, 효자, 열녀, 진



사와 생원시 합격자 명단 등을 담았다. 3권 '문화를 숭상한 불문여장성'에는 조

선환여승람, 조선호남지, 입암산성신지, 정암역지, 창평읍지 등 문화와 인물을 조명했다. 군은 장성군지리지총서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군청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의 역사와 지명, 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장성군지리지총서'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리지총서가 장성군 지방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고, 나아가 후대에 소중히 문화유산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기자 노트

장성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해야 하나



김용호 전남지역본부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권장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는 '연금 발전소'로 불릴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야산은 물론 섬 지역까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성군 역시 장성호 75ha (22만 6000평)에 75MW급 대형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총 771개 지구로 발전용량만 1904MW에 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허가를 신청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총 771개 지구로 발전용량만 1904MW에 달한다.

총 2098ha로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태양광 모듈 갯수 (1MW당 3000개)로 환산하면 570만개의 패널이 전국의 저수지를 덮게 되는 셈이다.

장성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벌써부터 찬반 논란속에 분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장성호는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합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

하고 가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태양광 패널(모듈)은 평균 수명이 20년 이하로 주성분인 유리, 은, 납, 실리콘 등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패널의 납 농도는 0.0064~0.541mg/L로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3mg/L 보

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납을 이용해 패널을 붙여 설치하는 만큼 많은 시체를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새들이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물인줄 알고 착지했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장성호에서 물을 퍼서 뿌려야 하는데 태양광 구조물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1년에 1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장성호에서 자연 경관을 해치는 태양광 발전소를 보면 관광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고 고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장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장성호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앞서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장성=yongho@kwangju.co.kr



담양군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힐링캠프' 호응

담양군이 최근 국립장성숲체원에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가족 등 43명과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를 개최했다. (사진)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2019 나눔의 숲 캠프'에 담양군보건의소가 2년 연속 선정, 국립장성숲체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 교육과 기초검진, 대사증후군, 개인별 성

격유형검사,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국립장성숲체원에서 마련한 별레토치제 만들기, 스토리가 있는 가족역사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함께했다. 이번 캠프 한 참여자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어 좋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복 담양군 보건소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힐링캠프를 통해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탄력 운영

화순군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혹서기(7-8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로 일사병, 열사병 등 열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화순군은 활동 횟수를 한 달 10회에서 7회로 단축하고 환경정화 사업은 활동 개시 시간을 오전 8시로 조정한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33일)

간) 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기간에도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참여자-탐방-참여자'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요령 등을 안내해 피해 발생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화순군은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강 증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4개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3862명)을 시행 중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장성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시행한다

장성군이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비상소집훈련 대체 민방위 온라인교육(디지털민방위)을 시행한다. 1년 이상 4년 미만의 민방위대원은 1년에 4시간 집합교육을 하고, 5년 이상 만40세까지의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5년차 이상 비상소집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이 대부분으로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 훈련 장소까지 왕복하는데 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 온라인교육을 추진한다. '민방위 온라인교육(디지털민방위)'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시간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된 1시간 강의로,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함께 익힐 수 있어 위급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강의 종료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합격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차 교육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2차 교육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 메타세쿼이아 '소풍마켓' 개장 27일로 연기

담양군은 당초 6일 메타세쿼이아 인증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소풍마켓을 오는 27일로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 담양 소풍마켓은 마을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통한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군에서 육성한 풀뿌리 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담양의 농부, 청년, 상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주민참여형마켓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자세한 사항은 담양여행사업단(061-383-8043)과 소풍마켓 인스타그램(@dambit_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 특성상 우천 우려에 따른 피해 대비를 위해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27일에 개최되는 7월 소풍마켓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속도 낸다

화순군이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은 능주면 중앙단지 일대에 내수면 양식단지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등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7월 중에 착공해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진입도로는 지방도 822호선에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부지(610m) 연결하는 구간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지역개발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풍암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